

유아기 자녀의 장애 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행복

정 계 숙(부산대 교수) · 최 은 실(부산대 연구원) · 박 희 경(부산대 박사수료)

본 연구는 자녀의 장애유무에 따라 어머니의 행복을 살펴봄으로써, 일반 유아와 장애 유아를 둔 어머니의 행복을 증진시켜주기 위해 각자의 특징을 고려한 적합한 지원책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.

행복에 관련된 문헌 연구를 기초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18요인(경제력, 사회·문화·환경, 외모, 건강, 자녀와의 관계, 가족관계, 배우자와의 관계, 대인관계, 사회적 지위 및 인정, 여가, 성취 및 자기수용, 자기개발 및 목표추구, 자립성, 종교, 이타심, 긍정적 인생관, 긍정적 감정, 몰입)을 선정하고 56문항으로 설문지를 최종 구성하여, 2011년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2개 대도시 및 인군 2개 중소 도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, 유아특수교육기관에 설문지를 각각 배포하였다. 수집된 자료는 SPSS 18.0을 사용하여, 연구문제에 따라 기술통계, t 검증, 분산분석(ANOVA), 그리고 사후검증으로 Scheffé 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.

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일반 유아와 장애 유아를 둔 어머니의 행복을 살펴본 결과, 일반 유아의 어머니는 학력($F=4.340$, $p<.05$), 월수입($F=2.696$), 직업유무($t=2.252$, $p<.05$)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, 장애 유아의 어머니는 월수입($F=7.035$, $p<.001$), 직업유무($t=2.903$, $p<.01$)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. 즉 장애 유아를 둔 어머니의 경우 학력은 행복에 중요한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일반 유아를 둔 어머니와 차이가 있었다. 또한 전체적으로 일반 유아를 둔 어머니의 행복보다 장애 유아를 둔 어머니의 행복보다 낮았다. 자녀의 장애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행복요소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경제력($t=1.363$)과 종교($t=1.359$)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아 자녀의 장애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, 그 외 행복요소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자녀의 장애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. 특히 어머니의 자기개발 및 목표추구(0.62)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여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 어머니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할 여유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. 그 다음으로 사회적 지위 및 인정(0.58)에서 큰 차이를 보여 장애 유아를 둔 어머니가 장애 유아를 돌보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 유아를 둔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나 인정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다. 그 다음으로 사회·문화·환경(0.52)에서 큰 차이를 보여 장애 유아를 둔 어머니의 사회문화적 환경이 일반 유아의 어머니보다 열악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.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자녀의 장애 유무에 따라 어머니의 행복을 이해함으로써 일반 유아와 장애 유아의 어머니의 행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, 어머니의 행복을 증진하고 나아가 유아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줌으로써 장애유무를 막론하고 모든 부모와 자녀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한다.